

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의 생태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생태도시에 대한 정의를 접근하고 있다.

생태도시를 도시가 환경 용량에 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각종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고 도시환경의 질이 안정적이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보전에 대한 역할 분담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기존의 정의에 비해 환경용량에 대한 생태도시학적 고려를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태도시간의 개념 관계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다.

나. 문화도시의 개념

Bianchini(1993)는 문화도시를 문화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구조화된 도시로 설명하였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가 지니고 있는 정체감을 문화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은 문화도시를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시설 등 문화적 기반이 구비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갖춰진 도시로 정의하였다. 그 유형을 역사문화도시, 예술문화도시, 산업문화도시, 복원문화도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은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한 산업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친환경적 환경조성을 통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문화도시로 문화산업과 도시재생, 창조 등이 거론되었으며, 문화지구로서 국토계획법(2000년 도시계획법)에서는 문화도시를 시범도시의 한 유형으로 규정(제5조 1항)하고 법률상 근거를 법제화 하였다.